

Vol.228

2021 04

# Open *Doors*

전세계 박해받는 교회를 섬기는 오픈도어선교회 월간 소식지

북한선교현장-탈북민 수기

“신앙의 자유를 찾아” (2)

박해와 선교현장

우즈베키스탄 (Uzbekistan)

스페셜

라마단 간증과 기도

부활절테러 2주기 스리랑카 시온교회

TALK

“한국오픈도어선교회”로 검색



## 복음주의적 통일신학과 이데올로기

노창영 목사 (개봉교회 담임, 한국오픈도어 이사)

지금 한국교회는 북한선교와 관련된 많은 선교단체들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각 선교단체마다 다양한 신학과 목표와 방법으로 북한 선교를 위하여 접근하고 있다. 북한선교는 통일신학의 바른 기초위에서 진행되어야 하는데 북한선교가 이데올로기(Ideology)로 변질되면 본래적 선교의 정체성을 상실할 수가 있다. 평화나 통일은 이데올로기가 되어선 안된다.

이데올로기(Ideology)는 개인이나 집단의 사고나 행동에 영향을 주고 이끄는 사상의 체계를 말한다. 민족주의, 민주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같은 영향력있는 정치, 민족, 사회, 경제적 이데올로기에서부터 다양한 종류의 이데올로기들이 인간의 신념체계를 지배하고 영향을 주고 있다. 이같은 이데올로기는 순기능도 있지만 역기능도 많다. 이데올로기를 절대적으로 신봉하는 사람들에게 이데올로기는 절대적, 신적, 종교적 신념 즉 우상이 되기도 한다. 이같은 경직된 율법적 신념의 노예가 되면 이데올로기에 스스로 종속되어 엄청난 파괴력으로 기존 사회의 질서와 전통가치나 체계를 붕괴시키거나 심지어는 집단학살, 전쟁, 폭력을 불사하게 된다.

이같은 이상적 신념을 추구하는 지도자나 추종자들은 인간의 기본권이나 생명의 가치를 무시하면서까지 그들의 이데올로기의 우상을 절대화하고 정당화시킨다. 히틀러의 게르만족의 우월주의라는 민족주의가 얼마나 엄청난 파괴력으로 유럽과 전 세계를 전쟁으로 몰아갔는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일본의 허황된 국수적 민족주의가 어떻게 대동아공영권건설을 위한 태평양전쟁을 통하여 끔찍한 비극을 가져왔는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다. 마르크스와 레닌과 스탈린과 모택동이 추구한 공산주의가 프롤레타리아혁명이라는 미명으로 비인간적, 비인격적 집단학

살을 자행하였는지를 역사가 말해주고 있다. 우리는 해방 후의 좌익과 우익의 이데올로기에 따른 폭력과 암살, 제주도의 4.3사건의 양민대학살, 베트남전쟁, 폴 포트와 캄보디아의 킬링필드를 통하여 이같은 위험성들을 잘 알고 있다. 또한 근자의 태극집회와 촛불집회를 통하여 이데올로기의 극단적 우상화와 위험성을 체험하고 있다. 평화나 통일의 사상과 신념은 이데올로기가 될 가능성을 짚고 있다. 남북한의 대립과 한반도의 상황이 평화나 통일에 대한 열망을 이데올로기로 몰아가고 있다.

기독교적 관점의 평화와 통일은 이데올로기가 아니다. 그것은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가족공동체를 향한 안타깝고 절실한 기도의 제목되어야 하며, 십자가와 복음을 통한 은혜의 결실이 되어야 한다. 기독교적 평화와 통일은 하나님과 평화한 사람, 가정, 교회,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선물이지 이데올로기적 우상이 아니다. 구약의 평화(shalom)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선물이요, 순종에 대한 축복의 열매였다. 신약의 평화(에이레네)는 예수그리스도를 주로 모신 성도나 교회에 부여주시는 부활의 주님의 임재의 선물과 열매였다. 구약과 신약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민족의 통일이나 하나됨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순종의 삶을 걸어간 선택받은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통치와 축복의 선언이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는 평화대신 전쟁, 통일대신 흠어짐으로 징계받았다. 평화와 통일은 교회의 목적이 되거나, 신학의 목적이 될 수 없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십자가와 복음에 순종하는 성도나 교회를 통하여 민족과 국가에 하나님의 축복으로서의 평화와 통일의 선물이 내려온다. 이데올로기는 인본주의적이며 인위적인 것이다. 인간의 사상과 신념이고 우상이다. 이데올로기는 상대적이며, 역기능으로 역사하면 엄청난 파괴력과 비극을 낳기도 한다. 반면

에 십자가와 복음은 사랑과 공효와 평화와 통일과 하나됨을 낳는다. 평화나 통일이란 주제가 우리의 현실적으로 당면한 강력한 이슈가 되다보니 이것이 이데올로기의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대치할 수도 있다. 평화와 통일을 추구하는 사상이나 전문가나 실무진들이 이 개념을 이데올레기화 하면 스스로가 우상의 울무에 묶여서 어떤 결실도 기대할 수 없게 될 것이다. 평화와 통일이 이데올로기로 경직화되면 율법적 우상으로 관념세계가 강박하게 되면서 다툼과 갈등만 조장하다가 평화와 통일은 물건너가게 된다.

이데올로기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성경과 복음의 기초위에서 선교와 평화와 통일을 향해 나아가는 교회의 사역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이다.

## Open Doors 7가지 핵심 가치



- 01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이다
- 02 우리는 박해받는 교회를 섬긴다
- 03 우리는 성경의 사람이다
- 04 우리는 기도의 사람이다
- 05 우리는 믿음으로 살며 사역한다
- 06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지상명령에 헌신한다
- 07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역한다

## CONTENTS

- 04 북한선교현장 - 탈북민 수기 - "신앙의 자유를 찾아" (2)
- 08 박해와 선교현장 - 우즈베키스탄
- 12 현장스토리 - 중앙아시아 '빅터 목사님'을 추모하며
- 14 사진으로 보는 중앙아시아 사역
- 16 WWL2021 기독교박해국가를 위한 기도
- 18 라마단 스페셜 - 간증과 기도제목
- 20 사역보고 - 부활절 테러 2주기 스리랑카 시온교회
- 22 희망의 선물캠페인 - 서부 네팔의 교회 건축
- 23 한국오픈도어연중캠페인

2021년 04월호 | 통권 228호 | 등록번호-성북 라 00066

공동대표 \_김성태 교수(국제관계), 신현필 목사(개발사역)  
 이사장 \_김성태 교수  
 부이사장 \_김명재, 김영복 목사  
 이사회 \_서창원, 노창영, 김영우, 최홍규, 김성곤, 박윤환,  
 이동현, 배준섭, 윤상덕, 안창호 이사  
 사무총장 \_정규일 목사  
 정보/행정/재정/홍보 \_최임경, 문민환, 전신애 간사  
 북한선교 \_제나, 이다니엘, 레아, 수지, 제시카, 노을, 요한 간사  
 발행처 \_한국오픈도어선교회  
 02857 서울시 성북구 안암로 9길 10 영성빌딩 4층  
 Tel. (02) 596-3171 / Fax. (02) 594-3171  
 이메일: odsk@opendoors.or.kr

편집 및 디자인 \_제이앤피

〈후 원 계 좌〉

라틴아메리카: KEB하나은행 630-007636-461  
 중앙아시아: 우리은행 1005-201-884969  
 중동(걸프 포함): 우리은행 1005-701-884976  
 아프리카: 우리은행 1005-901-884982  
 아시아: 우리은행 1005-901-884970  
 북 한: KB국민은행 029301-04-169183  
 희망의선물: 신한은행 100-027-453994  
 선교회후원: KB국민은행 029301-04-167093  
 어린이&청소년 캠페인: KEB 하나은행 280-890028-03905  
 여성사역 캠페인: 신한은행 100-027-219169  
 ■ 예금주 공통: 한국오픈도어선교회

오픈도어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도서잡지 윤리강령 및 잡지윤리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탈북민 수기

###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2)

- 고난의 행군 시절을 지나다 -

마리아 자매

돌격대를 제대하고 고향으로 돌아왔다. 갑작스러운 위장병으로 제대하기는 했지만 고향으로 돌아와서도 몸이 많이 아팠다. 한 1년 정도 제대로 일을 하지 못했다. 하필 돌격대에서 돌아오고 나서부터 우리 집은 조금씩 생활이 바빠지기 시작했다. 배급이 점점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90년대 중반 대기근만 떠올리지만 김일성이 죽기 전부터 경제사정이 좋지 못했고 배급도 줄어들었다. 우리 집은 죽과 밥을 그런대로 해먹고 살았지만 넉넉하지는 못했다.



〈고난의 행군 당시 북한의 장마당을 떠도는 꽃제비들(99년 1월 KBS 일요스페셜 방영)〉

몸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되고 나서야 다시 직장생활을 시작했다. 법랑 철기 만드는 곳이었다. 작업장으로 철판이 배송되면 그것에 모양을 찍어서 그릇을 만들고 사기물을 먹여서 덮어씌우는 작업이었다. 그렇지만 다시 작업장에서 일을 하게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고열로 병원에 입원해야 했다. 의사 선생님 말로는 장이 안에 끓었다고 했다. 그 이후 1년에 1번씩 2번의 수술을 했다. 다행히 그때 당시만 해도 병원 사정이 괜찮아서 입원하면 약도 나오고 의료 조치를 받을 수 있었다.

우리 둘째 오빠는 일찍 제대했다. 듣기로는 휴전

선 인근 부대에 근무하던 중에 소대장과 크게 다투게 되었고, 부대에서 우리 오빠가 혹시 충돌적으로라도 남한으로 도망갈까봐 우려해서 일찍 제대시켰다고 한다. 김일성이 죽은 다음해에 오빠는 결혼을 했다. 나도 오빠가 결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을 만났다. 새언니가 중매를 서준 사람이었다. 나는 성격이 강한 편이라 그런지 착한 그 사람의 성격이 끌렸다. 우리는 어머니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을 했다. 행복하고 축복된 일이 되어야 할 결혼이었지만 우리는 신혼의 즐거움을 누릴 세도 없이 온 나라를 강타한 최악의 경제난을 맞닥뜨리게 되었다. 고난의 행군으로 불리는 대기근이 강타했고, 하필 식량사정이 최악으로 치달

을 때 결혼을 한 셈이 되었다. 우리는 신혼살림을 차리자마자 굶기 시작했다.

고난의 행군 시절을 생각하면 그 때를 못넘기고 죽은 가족들이 먼저 생각난다. 오빠는 결혼하고 곧 아기를 가졌다. 그러나 조카는 태어나자마자 영양실조에 시달렸다. 건강이 안좋아진 새 언니가 제대로 모유를 먹이지 못했고, 먹을 것 자체가 부족하다보니 모유를 대체해서 먹일만한 마땅한 대체제를 찾을 수 없었다. 아이는 제대로 된 영양공급을 받지 못했다. 뭐라도 먹여보겠다고 어려운 살림에도 밀가루를 구해 유수가(사카린)를 섞어서 물에 풀어 먹이기도 했지만 그것으로 아기에게 충분한 영양공급이 될 리가 없었다. 결국 조카는 태어난 지 6개월만에 세상을 뜨고 말았다.

나도 어려운 시기에 아들을 출산했다. 임신은 되었지만 자주 굶다보니 모유가 부족해서 아기를 기르는데 큰 어려움이 있었다. 굶으면서도 아기에게 젖을 물리다보니 나의 얼굴이 살이 쏙 빠져서 해골처럼 되었다. 동네사람들은 길에서 나를 볼 때마다 ‘새댁은 결혼 올 때는 예뻐는데 지금은 형체 없네...’ 하며 안타까워하셨다.

아버지도 고난의 행군이 시작된 지 2-3년 뒤 여름경에 굶주림으로 돌아가셨다. 안타까운 것은 국가 경제 붕괴로 모든 통신이 끊기고 운송수단이 마비된 터라 아버지의 소식을 제때 듣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직접 찾아가기는커녕 전기가 없어서 전보도 받을 수 없었다. 나는 아버지께서 돌아가신지 한달이 지나서야, 그것도 고향 동네를 다른 일 때문에 우연히 찾아가다가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 자식으로서 말로 못할 불효를 저지른 셈이다.

아버지는 참전용사로, 상이군인으로 국가의 혜택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국가 경제가 붕괴한 마당에 아버지에게 돌아올 혜택 따위는 없었다. 어머니께서는 아버지께서 돌아가실 때 주머니에 옥수수 10알만 덩그러니 남아있었다고 하셨

다. 옥수수 10알... 차마 입에 털어 넣지 못한 그 옥수수는 어디서 주우신 것이었을까? 전장의 포화는 이겨냈지만 기근까지는 극복하지 못하고 돌아가신 아버지는 어떤 심정이셨을까...

집에 먹을 것은 없지만 키우는 돼지는 있었다. 암 돼지였다. 물론 돼지 먹일 것이 없었기 때문에 남이 다 자는 새벽에 인분을 도둑질해서 끓여서 돼지를 줬다.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그거라도 어렵게 구해서 이 돼지를 먹여야 된다는 생각에 몰두할 뿐이었다. 사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사람도 굶는 판국에 돼지를 기른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할 것이다. 당장의 상황만 보면 이 녀석이라도 빨리 잡아먹어야 할 일이었지만 이 돼지야말로 나중에 우리의 많은 끼니를 책임질 방편이었다. 키워서 팔면 더 많은 식량을 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 녀석은 임신을 했기에 새끼를 잘 나아서 팔면 돈이 되고 우리의 생계에도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었다. 그래서 악착같이, 남의 집 인분까지 몰래 퍼다가 먹이고 길렀다.

식량 부족은 굶주림으로만 끝나지 않았다. 보건 위생을 생각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질병이 퍼지기 시작했다. 우리 마을에도 고열에 설사를 동반한 장티푸스가 돌기 시작했다. 그 질병의 마수가 하필 우리 남편에까지 미쳤다. 남편은 장티푸스를





않는데 집에는 먹을 것이 없었다. 약은 당연히 한 알도 못썼다. 어려운 살림이었지만 장티푸스에 걸려 고열로 누워있는 남편을 위해 많지 않은 양이었지만 있는 것 없는 것 다 굶어서 밥을 차렸다. 그렇지만 남편은 속이 좋지 않은지 밥을 한 숟가락도 제대로 못 먹었다. 그 밥은 환자가 입 댄 것이라 전염의 위험이 있어 다른 사람이 먹을 수 없었다. 남편은 그 밥을 돼지 주라고 하는데 내 목구멍으로 침이 꼴깍 넘어갔다. ‘저 아까운 것 내가 먹어야 되는데...’ 그렇지만 나머지 병에 걸리면 우리 가족은 꿈쩍없이 죽은 목숨이다. 결국 그 귀한 밥은 돼지의 몫이 되었다.

당시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산에다가 밭을 일구겠다고 나가 있었고 나는 남편과 아기와 함께 지냈는데 도저히 먹을 것이 없으니 사방으로 먹을 것을 찾아 헤맸다. 그러다 우연히 늪은 호박을 찾았다. 이 호박을 삶고 끓여 먹으며 한 동안 허기를 달랬다. 한겨울의 추위도 문제였다. 추위를 이기기 위해 애기를 등에 업고 땔나무를 구하러 다녔다. 산에 갈 여력은 없으니 길가에 나뭇가지 떨어진 것을 찾아다녔다. 그렇지만 워낙 땔감이 귀하다 보니 충분한 양의 나뭇가지를 주워오기란 매우 어려웠다. 나중에는 빨래 방망이까지 불 때는데 썼다.

그래도 우리 가족은 고난을 잘 이겨내었다. 다행히 남편은 병을 털고 일어났다. 아이도 그 어려운 중에도 무사히 돌을 넘겼다. 친정어머니께서 오셔서 아기 돌을 축하해 주셨다. 그러나 친정어머니께서 아이 돌을 맞아 오셨다가 장티푸스에 걸리고 몸져 누우셨다. 그리고는 얼마 지나지 않아 막 돌을 지난 아들이 사고를 당하고 말았다. 당시 집에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서 소나무 팥술 같은 걸로 불을 켜고 불씨를 지켰다. 하루는 아이가 부엌에서 놀다가 부엌에 불씨가 꺼진 것을 보고 불 꺼졌다고 엄마한테 오다가 그만 가마솥에 손이 들어갔다. 아이는 큰 화상을 입었다. 남편과 나는 아이

를 들쳐 매고 병원을 찾아갔다. 가장 가까운 병원은 집에서 40리 정도 떨어진, 차로 30-40분이면 충분히 도착할 거리였다. 그러나 물자 부족으로 인한 차량 운행 중단으로 그 병원은 걸어서 5시간 걸리는 길이 되어버린 상태였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애기는 가쁘게 마지막 숨을 들이쉬고 있었다. 의사가 진료를 하려고 했지만 그땐 이미 고개가 폭 꺾이고 말았다. 그것이 아기의 마지막이었다.

죽은 아이를 다시 업고 오는데 너무나 원통했다. 주사 하나도 못 맞히고 치료 시도도 해보지 못했다. 자동차라도 다녔으면 이 아이가 살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니 그깟 차 한 대도 움직이지 못해서 아들을 잃은 꼴이 너무 비참했다. 엄마로써 아기 마지막 걸음을 함께하고 싶어서 끝까지 아이를 업고, 가로등도 없는 그 밤길을 걸어오면서, 내 마음은 억울함과 미안함으로 가득했다. 아이가 곁에 있던 1년 남짓 동안 사탕 한번 제대로 먹여보지 못했고 젖 한번 배부르게 먹이지 못했다. 이 험한 시기에 못난 부모를 만난 아이에게 너무 미안했다.

집에 돌아오니 새벽이 되었다. 남편 친구와 시누이 남편이 아이를 물어주었다. 시어머니는 난리가 났다. 남편이 장손인지라 우리 아기가 장손주인데, 어미가 부주의해서 장손주 되는 아이를 죽였다고 역정을 내시고 나를 내쫓으셨다. 그런 중에 남편은 평평 우는 내 손을 붙잡고 넋지시 위로의 말을 건넸다.

“우리 아기가 우리를 도와주려고 먼저 간지도 모르겠구려. 어른이 굶는데 아이는 어떻게 먹이겠는가 아무 대책도 없고... 이 험한 꼴을 아이가 어찌 살겠는가? 우리 아이가 부모 고생 안시키려고 먼저 간 것 같소.”

나에게 그렇게 말은 했지만 남편도 남 보지 않을 때 죽을 것 같이 울었다. 씩씩하고 내색하지 않던 남편이었지만 그때만은 앞이 안보인다 세상이 안보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며 고개를 숙이



〈압록강변에서 본 한 북한의 농촌마을. 산꼭대기까지 밭이 일구어져 있다〉

고 흐느꼈다. 남편의 눈물처럼, 정말 앞날이 캄캄하기만 했다.

그렇지만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라고 했던가... 우리는 배급 없이 사는 생활에 적응하기 시작했다. 사는 것이 여전히 어려웠지만 그 와중에 경험의 쌓였다. 고난의 행군 초반에는 많이 굶었지만 나중에는 산에 뛰기 밭을 일구어서 농사를 지으면서 수확이 많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반 년 먹을 양식 정도는 어떻게든 구할 수 있었고, 그걸로 쪼개 먹으면서 버텼다. 물론 산에다 일군 밭은 엄연히 불법이었지만 그런 건 이미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 어떻게 하면 굶지 않고 먹고 살겠는가 최대 관심사였기 때문이다. 장마당도 종종 이용했다. 산나물 캐서 새벽에 걸어서 읍내에 나가서 장사하고, 먹을 것을 사서 밤 늦게 집에 오곤 했다. 그러나 거리가 멀다 보니 자주 나가지는 못했다.

가족에도 경사가 있었다. 첫 아이가 죽고 2년이 지나 다시 아이를 가진 것이다. 먼저 딸을 낳았고,

뒤이어 아들을 하나 더 출산했다. 그때는 해산할 준비도 미리 잘하고, 그런대로 죽도 먹이고 밥도 먹일 수 있었다. 물론 없는 살림에 아이 둘을 키우기란 보통 힘든 것이 아니었다. 아이들에게도 간식거리 한번 제대로 챙겨주지 못한 것이 지금도 아쉽다.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고 정말 가장 가까운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을 2년 남짓 만에 잃었다. 조카, 아빠, 아들까지 앓아갔다. 그런데 북한 안에서는 이런 서러움을 곱씹을 새가 없었다. 마음이 아플 겨를이 없었다. 당장 먹고 사는 것이 너무 바빴기 때문이다. 단 한번도 과거를 차분하게 되돌아볼 수 없었다. 일단 지금 살아있는 식구들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옛날 일을 떠올린다는 것은 사치였다. 나중에 한국 와서야 그 아픔과 슬픔을 느낄 수 있었다. 슬픈 일을 충분히 슬퍼할 수 있다는 것이 이렇게 복된 일인지 몰랐다. 다시 슬픔을 회복하게 하시고, 새로운 희망을 가지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 우즈베키스탄

## Uzbekistan



인구 : 33,236,000명

주요 종교 : 이슬람(96.1%), 무신론/불가지론(2.6%), 기독교(1.0%)

기독교 인구(카톨릭 등 포함) : 345,000명

기독교박해 순위 : WWL2021-21위, WWL2020-18위

기독교박해 지수 : 71점

주 박해 요인 : 권위주의 정권과 이슬람교의 억압

### 우즈베키스탄에서 크리스천들은 왜 박해를 받는가?

우즈베키스탄의 주요종교가 이슬람(수니파)이지만, 우즈베키스탄을 무슬림 국가로 부른다면 잘못된 것이다. 70년간 소련 치하에서 무신론 사상의 깊은 영향을 받았다. 소련의 계승자인 정부는 철저한 세속주의로서 이슬람도 엄격하게 통제하기 원한다. 국민들이 이슬람의 가르침을 고수하기 보다는 이슬람 문화만을 따르도록 장려한다. 따라서 이슬람국가로서 크리스천을 박해하는 것이 아니라 권위주의 정권이 첫번째 박해요인이다. 우즈베키스탄은 1991년 8월31일에 독립을 선언하고 그

해 12월29일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된 이슬람 카리모프가 2016년 9월 사망하기까지 권좌에 있었다. 카리모프 치하에서 종교적 자유는 점점 더 제한을 당했다. 2대 대통령 현 미르지요예프(Shavkat Mirziyoyev)는 이웃국가와 러시아에 개방정책을 쓰지만 종교적 자유에 대한 규제들은 거의 변하지 않았다. 5대 개혁안에 종교적 관용 보장을 포함시키고 종교기관 등록규정과 보고책임을 간소화하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종교에 관한 하부법들은 종교단체들의 등록을 어렵게 한다. 등록되지 않은 교회 크리스천들은 반복적인 경찰의 단속과 위협, 체포, 벌금부과를 겪게 된다. 모든 범주의 기독교공동체

들은 신앙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압박과 폭력을 경험한다. 러시아정교회는 정부로부터 가장 박해를 적게 받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우즈베크인들과 접촉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즈베크 언어로 설교를 하는 것은 불법이다. 러시아어만 허용된다. 이는 개종을 금지하는 교묘한 방법이다. 러시아어는 구세대들만 아는 언어가 되었기 때문이다. 러시아정교회도 모임은 방해받지 않으나 기독교자료를 인쇄하거나 수입하는 것은 제한을 받는다. 미디어와 인터넷에 대한 정부의 엄격한 검열 하에, 우즈베크에는 크리스천 미디어 플랫폼이 없고 외국 크리스천 미디어에 접근하는데도 어려움을 겪는다. 두번째 박해요인은 우즈베크 사람들의 정서 때문이다. 우즈베크 사람들은 이슬람이 변형했던 과거를 자랑스러워한다. 과거에 사마르칸드와 부하라의 대학들과 마드라사(이슬람학교)들은 과학연구로 명성을 날려 전 세계 사람들을 끌어들였다. 그들의 세 무슬림 왕국들(Khanates)은, 현재의 우즈베키스탄 보다 훨씬 큰, 중앙아시아의 거대한 지역을 지배했다. 우즈베크 사람들은 무슬림 전통을 지키기 원하고 개신교의 활동에 반대한다. 이슬람에서 개종한 크리스천들은 가족, 친지, 공동체로부터 반대에 직면한다. 반대가 가장 심한 곳은 가장 보수적인 무슬림 지역으로 알려진 ‘페르가나 밸리’이다. 우즈베키스탄의 이슬람은 전통적이고 온건한 특징을 갖지만, 알카에다와 연계된 우즈베크 이슬람 운동(IMU), 이슬람 지하드 유니온과 같은 과격단체들도 있었다. 정부가 이들을 몰아냈으나 남동부 페르가나 밸리는 이슬람 과격단체들이 존재하며, 많은 우즈베크 청년들이 IS와 같은 과격단체의 활동에 매력을 느낀다. 수백명이 IS에 가입하여 시리아와 이라크 전쟁에 참여하기도 했다. 결국 국가와 우즈베크 전통공동체로부터 가장 큰 박해를 받는 이들은 무슬림에서 개종한 현지인 크리스천들이다.

※ 2019년과 2020년에 많은 이들이 새로운 종교법을 기대하고 있었다. 그러나 2020년 8월, 중앙아시아 인권전문단체 Forum18은, 새 법의 초안에도 실제로 모든 제한규정들이 그대로 남아있다고 전했다. 우즈베키스탄에는 수천명의 보수주의 무슬림들이 ‘종교적 극단주의’ 혐의 또는 금지된 종교단체 가입 혐의로 투옥되어 있다.

※ 1년간 8개 교회가 등록되었지만, 아직 20개의 알려진 교회들이 등록을 바라고 기다리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은 미국무성에 의

해 2006~2017년까지 특별우려국으로 지정되었다가 2018년 11월 감시대상국으로 완화되었지만, 공식적으로 러시아정교회, 로마카톨릭교회, 등록된 침례교회들에게만 약간 개선되었을 뿐, 다른 크리스천들, 특히 MBB 성도들에게는 상황이 거의 달라진 것이 없이 여전히 단속과 체포, 탄압을 받고 있다. 코로나로 교회활동이 중지되어 작년에는 없었지만 2018년에는 114차례의 미등록 종교단체 모임에 대한 급습이 있었다.

### 우즈베키스탄 일반 상황

우즈베크는 매우 높은 실업률, 빈곤, 인플레이션으로 경제가 어렵다. 약 7~8백만 명의 우즈베크 남자들이 외국에서, 주로 러시아와 카자흐스탄, 돈을 벌어 본국에 송금한다. 이들 이주근로자들은 전도에 훨씬 더 열려 있다. 우즈베크 경제는 목화재배에 의존하기 때문에 수확기간에는 모든 주민들, 교사, 학생, 공무원, 수감자들까지 동원된다. 목화밭에 물을 대기 위해 2대 강까지 말라가고 있어 정기적인 물부족을 겪는다. 우즈베키스탄은 중국과 서구를 잇는 전략적 위치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과 터키가 추진하는 신 실크로드의 대규모 건설공사가 진행중이다. 코로나19는 우즈베크 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다. 수많은 이주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었고, 코로나19 이동제한으로 귀국할 수 없어 천 명 이상이 카자흐스탄 남부 투르키스탄에 발이 묶였다. 크리스천들도 마찬가지로 이 같은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 우즈베키스탄에서 크리스천들의 삶은 어떤가?

• **개인 영역** : 개종사실을 가족에게 말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수치와 명예 문화’ 때문에 가족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이 사실을 숨기려고 한다. 기독교자료를 개인적으로 소유하는 것 또한 위험하다. 개종의 증거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성경은 반드시 우즈베키스탄에서 인쇄되었다는 직인이 있어야 한다. 개인이 1권 이상의 성경을 소지하는 것은 불법이고, 집 밖으로 성경을 가지고 나가는 것도 불법이다. 성경이나 종교서적을 공개된 장소에서 읽는 것 또한 불법이다. 한 가정은 주일학교에서 암송하는 기독교 시가 아들 침대에 붙어있다는 이유로 벌금을 부과 받았다. 개인신앙을 기록된 형태로 표현하는 것은 위험하다. 이는 가족과 무슬림과 정부기관의 주의를 끈다. 주의를 끄는 위험 때문에 많은 우즈



백 성도들은 일대일 만남만을 가진다.

• **가정 영역** : 기독교 가정의 자녀들도 학교에서 반기독교 또는 다수종교(이슬람) 교육에 참여하도록 압력을 받는다. 학교와 대학교에서 반종교 선전은 정기적으로 일어난다. 강의 형태로 주어지는 그러한 선전에 참석하는 것이 필수이다. 이슬람을 떠난 궁극적 표징이 되는 세례는 방해받는다. 세례가 법적으로 금지된 것은 아니다. 크리스천 부부는 아이를 입양하는데 방해받는다. 불법은 아니지만 아이를 개종시킬 것으로 여겨지지 때문이다. 입양된 부모가 크리스천이라고 사회복지사에게 말하자 고아원으로 되돌려 보내진 아이의 사례도 있다. 교회에서 청소년사역은 불법이기 때문에 가정에서 부모에게 받는 신앙교육이 유일한 방법인데, 확대가족이 개종한 가족의 자녀를 이슬람으로 되돌리려 하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를 기독교 신앙으로 양육하기 어렵다.

• **지역공동체 영역** : 크리스천들은 지역당국 및 사설 단체들로부터 감시를 당한다. 경찰에 신고, 미행, 전화도청, 이메일 검열 등을 당한다. 러시아정교회 이외의 모든 교회 크리스천들은 모든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정부기관의 감시를 받는다. 크리스천들은 신앙관련 이유로 벌금을 받는다. 심지어 스마트폰에 크리스천 노래를 가지고 있다는 것도 벌금 대상이다. 등록된 침례교회 성도들도 그렇다. 크리스천들은 신앙관련 이유로 심문을 당하거나 경찰에 소환된다. 알려진 MBB성도들은 필수적으로 종종 경찰서에 가야하고 가서 위협을 당한다. 거리에서 붙들려 조사를 받기도 한다. 개종을 하면 가족과 친구들과 공동체로부터 위협을 당한다. 지역 무슬림공동체는 개신교도들을 전도행위로 고발하고 괴롭힌다. 복음주의자들은 당국으로부터 위협과 차별, 괴롭힘 등을 당한다.

• **국가 영역** : 헌법이 세계인권선언18조에 명시된 종교의 자유를 제한한다. 종교단체들이 정부에 등록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하고 미등록 단체들의 종교활동을 불법으로 선언한다. 법적으로 공개발언과 개종을 제한한다. 우즈베키스탄에는 기독교 민간단체나 정당이 없다. 이러한 단체의 설립을 신청하는 것만으로도 경찰에 체포되기에 충분한 사유가 된다. 극단주의 단체 설립을 시도했다는 이유로 체포된다. 기독교 기관은 모두 사람

들을 기독교로 개종시키려는 시도로 간주되고 금지된다. 공개적인 신앙표현은 정부와 지역사회의 보복을 불러일으킨다. MBB들과, 러시아정교회 소속이 아닌 크리스천들은, 박해의 강도가 너무 심해서 신앙을 비밀로 해야 한다. 크리스천에 대한 당국의 박해행위는 법의 지지를 받기 때문에 처벌이 없고, 무슬림 지역공동체의 박해행위 역시 거의 처벌되지 않는다.

• **교회 영역** : 등록된 교회 밖의 모든 크리스천 활동은 금지된다. 무슬림들이 즉시 당국에 고발한다. 특히 청소년, 미성년자들에 대한 종교활동-주일학교, 유스 캠프-은 금지된다. 이러한 행사의 어떠한 조짐만 보이면 무슬림들이 신고한다. 개종을 권유하는 경우 형법에 의해, 3년 감옥형까지, 처벌된다. 따라서 교회는 개종한 이들을 공개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특히 시골지역에서 개종은 무슬림들에 의해 맹렬한 반대를 받는다. 모든 종교적 자료는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외되는 항목은 거의 없다. 따라서 성서공회조차도 어려움을 겪는다. 무슬림들은 크리스천이 기독교자료를 불법적으로 수입하는 것을 발견하면 당국에 고발한다.

## WWL2021 박해보고

(2019년 10월 1일~2020년 9월 30일 기간)

-이 기간에는 코로나로 인해 교회활동이 중단되어 교회에 대한 당국의 급습이 전년보다 크게 줄었다. (cf. WWL2020 기간에는 114건의 미등록 종교단체에 대한 경찰의 급습이 보고됨) 이 기간에 무슬림에서 개종한 크리스천 21명이 가족과 마을공동체로부터 학대와 폭행 등을 당한 것으로 보고되었고, 4명이 신앙 때문에 집을 떠나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11월 6명의 침례교인들이 카자흐스탄에서 돌아오는 길에 국경에서 4시간 심문을 당했다. “학습성경” 10권을 소지하고 있었다는 이유에서다. 그 책을 어디서 구했는지에 대해 심문을 받고 책들을 압수당한 후에 풀려났다.

-크리스천 자매가 무슬림 남편에게 반복적으로 구타를 당하고 이혼을 당한 일, 다른 크리스천들을 만나지 못하도록 수시로 찾아와 폭행을 당한 사

례. 목사 가족이 무슬림 친척들에 의해 집에서 쫓겨나고, 신앙을 버리고 교회 일을 중단하지 않으면 죽이겠다는 협박을 받은 사례 등이 있다.

## 올해 우즈베키스탄 3개 교회 폐쇄

3개의 지하교회들이 박해 때문에 문을 닫았다. 각각 다른 지역 출신의 MBB가족 3가정이 자기집을 개방하여 크리스천들의 모임을 가졌던 지하교회들이다. 지난 2월 이 세 가정교회는 문을 닫고 모임을 중지했다. 무슬림 친척들과 마을공동체의 심한 압력 때문이었다. 이 가정교회들을 인도해온 선교사 중 한 명은 중앙아시아에서 가정교회들의 중요성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이 팬데믹 시기에, 큰 교회에배는 그리 효과적이지 않고, 시골에 사는 사람들 대다수는 참석할 수도 없어요. 이들에게는 또한 인터넷이 잘 안되서 온라인 모임이 불가능합니다. 인터넷이 아예 없는 사람들이 더 많구요. 그래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작은 가정교회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이 자라고 믿음을 실천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나누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 무슬림 사회에서 말이에요. 이 세 교회는 이 지역 MBB들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 최근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 교회 박해 사례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에 있는, 400명 성도 규모의 사나락 교회가 시 경찰에 의해 고발을 당해 당국으로부터 폐쇄 위기에 있다고 한다. 사나락 교인들 일부가 무슬림들의 감정을 모욕했다는 고발이다. 현지 사역자에 의하면, 이는 매우 심각하고, 어려운, 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고발이다. 그는 **“우리는 교인들에게 다른 종교를 존중하라고 가르칩니다. 우리의 목표는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경찰과 시청에 소환되었습니다. 아직 어떻게 될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최악의 가능한 시나리오는 교회가 폐쇄를 당하고 여러 명이 투옥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현재 변호사 한 분이 이를 막기 위해 돕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며 기도를 부탁했다.

## 우즈베키스탄 개신교회

우즈베키스탄을 포함하는 중앙아시아에 들어온 최초의 기독교인은 4세기의 네스토리안 선교사들이었다. 네스토리안 교회는 14세기부터 쇠퇴기를 겪었다. 그때 그 지역의 몽골 지배자들이 이슬람으로 개종하기로 결정하였다. 그후로, 네스토리안 기독교는 주로 북부 메소포타미아와 인도 남부 말라바르 해안 지역에 한정되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현재의 기독교는 19세기에 시작되었다. 1867년에 러시아제국이 중앙아시아로 영토를 확장하면서 러시아 정교회 소속의 러시아인들을 이주시켰다. 2차 세계대전 동안, 스탈린은 게르만인, 우크라이나인, 폴란드인, 고려인들을 러시아로부터 중앙아시아로 추방시켰다. 이들이 위협이 될 것을 두려워한 조치였다.

이들의 이주와 함께 다른 기독교 교파들도 우즈베키스탄에 들어오게 되었다. 1991년 우즈베키스탄이 독립국가로 된 이후로, 비전통적인 기독교공동체들이 우즈베크인들 가운데 적극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했다.

## 우즈베키스탄 기독교인 현황

정교회	200,000명(58.0%)
카톨릭	3,500명(1.0%)
개신교 기성교단	40,000명(11.6%)
독립교단	88,600명(25.7%)
무소속	13,000명(3.8%)
이중소속	0명(0.0%)
합계	345,100명(100%)

## 기도해주세요

우즈베키스탄 현 정부의 종교통제완화 정책이 등록되지 않은 교회와 MBB까지 모든 크리스천들의 종교적 자유를 확대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올해 2월 폐쇄한 우즈베키스탄 가정교회 3곳이 재개되기를, 폐쇄 위기에 있는 카자흐스탄의 사나락 교회가 지켜지기를 기도해주시고, 유사한 상황의 모든 중앙아시아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 중앙아시아 ‘빅터 목사님’을 추모하며

“저의 간증과 삶이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오픈도어는 중앙아시아의 MBB교회가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영적으로 강건하여 믿음의 영향력을 발휘하고, 기독교신앙을 위협하는 위험한 민족주의에 맞서서 존재할 수 있도록, 마이크로 대출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2016년에는 중앙아시아 국가들에서 903명의 성도들에게 총452,144달러를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그 수혜자의 한사람인 빅터 목사님은 축산업을 성공적으로 일으켜 수익을 창출하며 교회사역을 이끌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목사님이 작년에 간암으로 소천하셔서, 목사님의 놀라운 간증을 소개하며 아드님이 이어받은 이 사역이 지속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생전에 목사님(이하 빅터 형제)을 방문했을 때의 기록입니다.

한 작은 마을에서 우리는 빅터 형제를 방문했습니다. 빅터 형제는 우리에게 동물사료로 가득한 창고를 보여주었습니다. 소들을 먹일 소금 덩어리들, 온갖 곡식들, 닭들을 위한 쌀, 개들에게 줄 마카로니 등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이 동물사료들을 구입하려고 멀리서 옵니다. 이 사업을 시작한지 4년 되었다고 했습니다. 오픈도어 여러분의 후원 덕분에 이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빅터 형제는 우리가 그의 작은 마을에 온 것을 환영해주었습니다. 그의 사역과 사업을 보며 우리가 먼 나라에서 온 것에 대해 감사했습니다.

**“이 마을의 이름이 ‘혁명’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여기서 하고 있는 일이 바로 혁명입니다, 사람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오는 것이지요!”**

저는 1996년에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신앙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영적인 문제나 신을 무시하고 살았었죠. 그런데 법을 어겨서 경찰에 쫓기게 됐어요. 저는 우크라이나 사람인데 이 나라로 이주해왔거든요. 처음에는 러시아 야쿠티아로 갔어요. 영하 50도였지요. 그때 저는 헤로인 마약 중독자이기도 했어요. 24살에 중앙아시아의 이 나라에 처음 왔는데, 저의 생활은 바뀌지 않았어요. 여전히 불법 마약 거래를 했어요. 타지키스탄에서 이곳으로 마약 밀수를 했습니다. 심지어 아프가니스탄까지 갈 기회도 있었지만 그건 너무 위험해서 거절했어요.

1996년, 헤로인 4kg을 소지하고 있다가 잡혔습니다. 체포되어 감옥에 갇혔어요. 감방 동료의 어머니가 물건을 보냈는데 그 안에 요한복음이 있었어요. 그 친구가 그 책을 저한테 보여주며 ‘읽을래?’라고 물었지요. 열흘째 잠이 안오길래 저는 그 책을 집어들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와 같은 말씀은 저한테는 통 이해가 안됐지요. 도대체 무슨 말인가? 저는 그 책을 밀쳐 놓고 그만 읽었어요. 그런데 또 며칠밤이 지나도 잠이 안와서 다시 읽기 시작했는데 이번에는 읽기를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제 마음은 공허하고 더 이상 살고 싶지도 않았고, 얼마나 오래 감옥에 있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저는 영원한 생명에 대해 읽은 겁니다. 영생에 대한 말씀이 제 눈길을 잡았습니다. 영생을 생각하니 정말 영생을 소원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감옥에서 풀려나기를 바라는 마음보다 더 간절히 영생을 소망하게 됐어요.

저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몰랐지만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아시지요. 저는 당신의 존재를 확신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영생을 원합니다. 거듭나고 싶습니다.’ 저는 감방에서 성경을 계속 읽었어요. 주위에 크리스천은 한 명도 없었어요. 저와 그 책만 있었습니다!

얼마 후에, 제 감방에 또 하나의 꾸러미가 전달됐어요. 감방들 사이에 우리는 로프줄을 이용해 물건을 서

로 보내곤 했지요. 다른 수감자들이 저한테 작은 마약 꾸러미를 보낸 거예요. 다행히 저는 그걸 거절할 힘이 생겨서 되돌려 보냈습니다. 혼자 앉아서 많은 질문을 했어요. 그 마약을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무엇인가?’ 마약을 보며 저는 그 마약들이 저의 정신을 뺏아갈 것이라는 걸 알았어요. ‘이것은 죽음이다!’ 나는 말했어요. 그리고 내가 아는 생명의 말씀을 쳐다보았지요. 그리고 생명을 택하리라고 결심했습니다. 저는 마약을 돌려보냈어요.

저는 이제 제가 천국에 가리라는 확신이 생겼어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순전한 기쁨이 마음에 들어왔어요. 다른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지요. 감옥에서 나는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두가지 일이 발생했습니다: 의사가 저의 몸에서 심각한 질병을 발견한 것과, 법정에서 6년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입니다. 의사들은 내가 1년반 밖에 못 살 것이라고 말했어요. 저는 천국에 갈 것을 알았기 때문에 두렵지 않았어요. 저의 병은 더 좋아지지도 나빠지지도 않았어요.

감옥으로 돌아가 우리는 일종의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한 형제가 악기를 연주하고 우리는 소그룹들로 모였습니다. 저는 잘 모르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함께 기도했어요.

감옥에는 발표를 하는 마이크가 있었어요. 밖에 광장에 있었어요. 우리가 기도모임을 하는 걸 아는 감옥관리자가 저에게 묻더군요. ‘마이크를 사용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게 어때?’ 저는 겨울에 밖은 너무 춥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관리자가 또 말했어요. ‘추위는 신경 쓰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지!’

천천히, 저는 가족과 다시 연결되었고, 가족들은 감옥에 있는 저에게 아주 잘해주었어요. 그때 제 몸무게는 겨우 62kg였어요.

감옥에서 나온 후에 저는 성경학교에 들어갔고, 재활센터에서 마약중독자 사역을 시작했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도시에서는 한 교회의 목사이고, 여기 이 시골에서는 10명 정도 성도들을 돌보고 있어요. 등록되지 않은 교회라 모이는 것

이 위험합니다.

네, 우리는 여기서 사업도 해요. 시작할 때는 마이크로 대출도 없었지요. 우리 스스로 시작했어요. 나중에 오픈도어의 마이크로 대출 도움을 받아 발전할 수 있었어요.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계획이 아니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역으로 우리를 인도하셨어요. 힘든 일이고 높은 수익을 내지는 않지만 그래도 수입이 됩니다.

경찰이 와서 수색을 하면 큰 문제들이 생길 수 있지요. 우리는 여기 비밀리에 하는 사역들이 많으니깐요. 그러나 지혜롭게 하고 있어요. 믿을만한 사람들만 알게 사역하고 있지요. 고객들은 창고까지만 오고 더는 안들어와요. 성경공부를 할 때 우리는 문을 닫거나 문 앞에 차를 세워놔요. 이웃들은 우리가 무얼 하는지 볼 수 없어요. 사람들이 들어와서 검사할 이유는 없는 거니까요. 보이는 활동은 우리가 파는 가축사료들이지요.

우리는 한 장소를 빌려서 10명의 성도들과 만나요. 등록된 교회가 아니니 조심해야 하지요. 우리는 전도 폭발 교재를 사용하고 있어요. 일단 사람들과 접촉이 되면 가정에서 만나 영생에 대해 나누고 그리스도께로 나오는 방법을 가르쳐줍니다.

해야 할 일이 아주 많습니다. 밤에는 시골마을들로 전도하러 갑니다. 침례교와 루터교 신자들도 이 지역에서 활동합니다. 노방전도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질문을 받으면 답을 합니다. 한 여성이 세례에 대해 질문을 했어요. 우리는 그녀의 집으로 가서 차를 마시며 더 깊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기회를 이용해서 그들의 집에 들어가 복음을 나눕니다.”

방문자들이 빅터 형제에게 기도제목을 물으니 빅터 형제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저의 간증과 삶이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또 저의 (믿지 않는) 친척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주세요.”

**빅터 목사님의 기도대로, 그리스도를 모르는 많은 이들 이 빅터 목사님의 믿음의 유산을 통해 주님께로 인도되기를, 목사님의 아들들을 통해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지속되고 확장되기를 기도해주세요!**



# 사진으로 보는 중앙아시아 사역



가정교회 모임



석탄연료 구호



축산사료 사업



2020성탄축하와 선물



코로나 긴급구호





06

## 에리트레아



인구

540만 명 / 기독교인 260만 명

지도자

이사이아스 아페웨르키 대통령

박해지수 (1점 증가)



에리트레아에서 비전통적인 교단의 크리스천들이 가장 심한 박해를 받는다. 에리트레아 정부가 인정하는 유일한 기독교 교단은 에리트레아 정교회(EOC)이다. 박해는 정부와 이 에리트레아 정교회로부터 온다.

정부 보안군은 크리스천들을 대상으로 모든 전화를 모니터링하고 모든 활동을 감시하며 크리스천들을 급습하여 자료들을 압수하고 가정교회들을 파괴 한다. 크리스천들은 끔찍한 비인간적인 감옥에 재판없이 투옥될 수 있다. 생사여부를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오픈도어는 에리트레아의 지역교회 파트너들을 통해 박해받는 성도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성경과 제자훈련을 지원하며, 에리트레아의 실상을 알리고 기도 후원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기도해주세요

- 투옥되어 있는 성도들과 그 가족들을 위해,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도록.
- 교회지도자들이 종교의자유 문제를 정부에 제기 할때 지혜가 있도록.
- 에리트레아 성도들이 믿음에 견고히 서 있을 수 있도록.

07

## 예멘



인구

3,020만 명 / 기독교인 몇 천 명

지도자

압드라부 만수르 하디 대통령

박해지수 (2점 증가)



예멘에서 크리스천들은 보통 신앙을 비밀로 한다; 만일 발견되면 죽음의 형벌에 직면할 수도 있다.

이슬람을 떠나는 것은 금지되며 모든 예멘인들은 국가에 의해 무슬림들로 간주된다. 이슬람 무장단체들은 무슬림에서 개종한 크리스천들을 죽이겠다고 위협하며 부족들은 기독교로 개종한 이들을 죽이거나 추방할 수 있다.

내전과 팬데믹은 모든 예멘 국민들에게 영향을 끼쳤지만 특히 크리스천들은 더 피해를 입었다. 구호품이 주로 이슬람 지도자들과 모스크를 통해 배급되었기 때문이다. 무슬림이 아니라고 생각되는 사람은 차별을 받았다.

오픈도어는 기도운동을 일으킴으로써 아라비아 반도에 사는 그리스도의 지체들을 지원합니다. 또한 성경 자료들과 평신도/목회자 훈련들을 제공합니다.

기도해주세요

- 비밀성도들이 서로 도우며 세워줄때 지혜와 분별력이 있도록.
- 위험을 무릅쓰고 전도대상자들과 새신자들에게 제자 훈련을 하는 이들을 위해.
- 예멘에 평화가 정착되도록.

23

## 투르크메니스탄



인구

600만 명 / 기독교인 68,000 명

지도자

구르반굴리 베르디무хам메도프 대통령

박해지수 (변동 없음)



이 억압적인 이슬람 국가에서 크리스천들에 대한 박해는 주로 정부와 사회로부터 온다.

정부는 교회 생활에 많은 규제들을 가한다. 정부에 등록되지 않은 교회들은 경찰의 급습, 위협, 체포, 벌금이 부과되기 쉽다. 러시아정교회와 같이 정부에 등록된 교회들조차도 예배가 모니터 당한다. 기독교 자료를 인쇄하거나 수입하는 것 역시 규제를 받는다.

무슬림 가정에서 개종한 크리스천들은 가족들과 친구들, 이웃들로부터 신앙을 부인하라는 심한 압박을 경험한다.

오픈도어는 중앙아시아의 박해받는 성도들을 강건하게 하기 위해, 성경과 신앙서적 자료 배포, 훈련 제공, 사회경제적 프로젝트들, 기타 실제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해주세요

- 교회에 대한 엄격한 규제들이 완화되도록.
- 교회 지도자들의 신체적, 정서적, 영적 건강과 안위를 위해.
- 무슬림 출신 성도들이 보호를 받고 그들이 속한 공동체에 강력한 복음의 증거가 되도록.

33

## 타지키스탄



인구

950만 명 / 기독교인 66,300 명

지도자

에모말리 라흐몬 대통령

박해지수 (변동 없음)



교회들이 타지키스탄 당국자들의 급습을 받는 것은 매우 흔하다. 교인들이 심문을 당하고 심지어 고문을 당하는 일도 흔하다.

종교활동을 규제하는 법들은 지키기가 매우 어렵다. 경찰은 자주 이 법들을 이용해 크리스천들을 괴롭히고 압박한다. 교회 모임을 방해하고 성도들을 구금한다. 교회 건물을 압류하고 재산을 몰수한다.

목사들은 투옥되거나 무거운 벌금이 부과된다. 무슬림 출신 성도들은 국가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가족들로부터 직접적인 박해를 받는다.

오픈도어는 중앙아시아의 박해받는 교회들을 강건하게 세우고 있습니다. 성경과 신앙서적 전달, 훈련, 구호사업, 사회경제개발 프로젝트들을 진행합니다.

기도해주세요

- 목회자들과 교회지도자들, 특히 정부의 감시를 받는 이들과 구금된 이들을 위해.
- 가족과 공동체의 심한 압박 하에 있는 무슬림 출신 크리스천들이 자기들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도록.
- 타지키스탄 정부를 위해, 크리스천들을 향한 그들의 마음이 부드럽게 누그러지도록.



# 라마단 기간에 주님을 만나다

라마단은 무슬림 달력의 9번째 달입니다. 이슬람의 다섯기둥 중 하나이며, 샤하다(무슬림 신앙고백암송) 다음 가는 두 번째 기둥입니다. 라마단 기간동안 무슬림들은 일출부터 일몰까지 음식, 음료, 섹스, 부도덕한 행동들을 금합니다. 올해 라마단은 4월 13일~5월 12일 입니다.



라마단 기간, 필리핀남부에서도 많은 무슬림들이 사후에 보상을 얻기 위해 알라에게 기도하고 금식하는 신성한 기간입니다. 수라이다도 그녀가 치유를 받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까지 이것을 믿었습니다. 수라이다는 60세의 할머니입니다. “처음 복음을 들었을 때, 저는 즉시 부인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믿음이 나의 종교와는 다르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수라이다는 말했습니다. 누군가 그녀에게 성경책을 주었습니다. 성경책을 펼쳤을 때, 수라이다는 자기가 사용하는 현지어로 성경책이 쓰여져 있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책을 읽을 생각도 않고 옷장에 성경책을 두었습니다.

수라이다가 무척 아픈 어느 날, 손녀딸이 집 근처에 그리스도인이 운영하는 의료진료소에 모시고 갔습니다. 거기서는 약을 주고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했지만 무슬림들이 기도하는 방식이 아니었어요. 이사 알마시(예수)가 나를 치료해 주시길 기도했어요.”라고 수라이다는 회상했습니다. 수라이다는 집에 도착해서 성경책을 펼쳤고, 성경책을 읽기 시작하자 치유를 받았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기

적인가요!

수라이다가 마침내 성경책을 펼쳤던 그날 이후,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그녀의 사랑을 커져만 갔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 덕분에, 오픈도어 현지 사역자들은 수라이다에게 성경훈련을 제공할 수 있었고, 그녀는 다른 사람들을 위한 성경공부반을 인도할 수 있도록 배웠습니다. 이제 수라이다는 집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칩니다.

지난 해에는 하나님께서 그녀의 가족들에게 역사하셨습니다. 남편 지미가 라마단 기간 동안 금식할 거라고 하자 수라이다는 이제 그리스도를 따르기 때문에 전혀 금식하지 않을 거라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3일 후, 지미는 아파서 금식을 할 수 없었고 잠이 들었는데, 꿈 속에 한 남자가 나타나 이전에 따르던 것을 따르지 말고, ‘그 여자를 따르라’고 하며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지미는 그 남자가 말한 여자가 아내 수라이다 라고 말했고,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러자 이 가족은 박해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이 교회로 걸어 갈 때면, 사람들은 그들을 향해 소리치고 비웃었습니다. 수라이다와 지미가 그들의 전통 믿음을 버렸다고 화를 냈습니다. 이웃이 휘두른 칼에 손이 찢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미는 말합니다. “이런 문제들이 일어난다 해도, 나는 마음을 바꾸지 않아요. 나는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주님이심을 내 마음 속 깊이 알고 있습니다.”

올해 라마단 기간 동안, 수라이다와 그녀의 가족들은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알게 되도록 기도할 것입니다. 그들의 집은 예배하고 교제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필리핀 남부의 더 많은 사람들이 올 해 라마단 기간 동안 예수님을 믿게 되도록 함께 기도해주세요!

# 라마단 기간에 기도해주세요!

## 특히 SS아프리카의 크리스천들을 위해



라마단 기간은 사하라사막 이남(Sub Sahara) 아프리카 전역의 기독교인들에게 긴장과 외로움이 고조되는 시기입니다. 무슬림들에게도 영적인 의식이 고조되는 시기입니다. 이 지역의 크리스천들이 압박속에서 믿음에 확고히 머물 수 있기를, 또한 많은 무슬림들이 이 기간 동안 그리스도께로 가는 여정을 시작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1.** 라마단은 MBB(무슬림에서 개종한 크리스천)들에게 외로운 시간입니다. 사하라이남(SS) 아프리카 전역의 MBB들이 주님의 임재와 위로를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들의 믿음이 강해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2.** 무슬림들이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그들은 종종 신체적인 위협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 시기에 기독교 공동체에 대한 공격은 흔한 일입니다. 이번 라마단 기간 동안에 SS아프리카에 있는 기독교인들의 신체적인 보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3.** 오픈도어 전문가는 "MBB들을 고통스럽게 해서 이슬람으로 되돌리기 위해 MBB들과 싸우는 강한 영적 세력이 있다"고 말합니다. MBB들이 이 시기에 이슬람으로 되돌아가려는 유혹을 받지 않도록 영적인 보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4.** “교회가 MBB의 필요에 깨어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들 중 일부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매를 맞고, 거절당하는 너무 많은 문제들을 가지기 때문에 깊은 심리적 도전으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MBB를 옹호하고, 그들을 제자 삼고, 그리스도의 삶을 그들에게 실제로 보여줄 수 있는 크리스천들이 시급합니다”라고 전문가는 말합니다. 라마단 기간동안 MBB들이 교회에서 따뜻하게 환영받고 감정적 돌봄을 누리게 되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5.** 무슬림들이 기도와 명상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듯이, 주님께서 그분의 영을 통해서 일하여 주시기를,

의에 대한 굶주림과 갈증을 일으켜 주시고, 이것들이 오직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만 온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6.** MBB들을 돌보는 교회들 사이에 오픈도어의 훈련이 결실을 맺도록 그리고 이 시기에 새로운 신자들이 환영받고 사랑스러운 보살핌을 받을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7.** MBB에 대한 우리의 경제적 지원이 결실을 맺기를, 그리고 이들이 생계를 유지하기를 그리고 가족과 공동체들이 그들을 거부한 후에 직면하는 연약함을 끝내고 가족들을 부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8.** 교회들이 라마단 기간동안 무슬림 이웃들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방법을 찾고 복음이 가능한 모든 방식으로 전해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9.** 주님께서 MBB 공동체 내에서 남성, 여성, 청소년들을 돌볼 수 있는 많은 역량 있는 지도자들을 세워주시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10.** 나이지리아의 ‘보코 하람(Boko Haram)’, 말리의 ‘알카에다 이슬람 마그레브(AQIM)’, 중앙아프리카공화국의 ‘셀레카(Seleka)’, 콩고민주공화국의 ‘민주동맹군(ADF)’, 소말리아의 ‘알샤바브(Al Shabaab)’와 같은 이슬람 급진주의 무장단체들에게 주님의 영이 역사하시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마그레브: 아프리카 북서부 일대를 통칭하는 용어

※ 오픈도어 홈페이지 자료실에 이 지역 성도들의 사연을 포함한 ‘라마단 기도’ 파일 자료가 있습니다.



## 부활절테러 2주기, 스리랑카 시온교회 성도들

2019년 4월 21일 부활주일, 이슬람 극단주의자의 폭탄테러로 스리랑카 시온교회 성도들이 어린이를 포함하여 31명이 사망했습니다. 시온교회 성도 83가정이 가족이 희생되거나 심각한 부상을 당했습니다. 걸을 수 없게 된 사람들도 있고, 기억을 잃어버린 엄마도 있으며, 영구실명을 한 소녀도 있습니다. 아직도 무조건 사람들 품속에 숨는 아이도 있습니다. 오픈도어는 여러분의 후원으로 그들과 함께 하며 재활과 자립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2주기 부활절을 앞두고 그 중 일부를 소개합니다.



### 비전

교회를 보수 재건하는 동안 시온교회는 다른 건물을 빌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픈도어가 방문한 주일, 예배는 거의 4시간 동안 드려졌고, 기적적인 치유의 역사도 일어났습니다. 시온교회 성도들은 2만 명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 미셸 사모님의 자랑

미셸 사모님은 이 어둠 속에서도 아름다움을 찾았다고 말합니다. “무엇보다 제가 자랑스러운 것은 이 83가정이 모두 예수님의 손을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자기의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우리에게 격려가 되지요.”



### 레베카의 노래

24세의 레베카 자매는 부활절 테러에서 언니와 형부와 조카를 잃었고, 자신은 심한 화상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녀는 소망을 잃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증인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우리에게 일어난 일과,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 증인이 되고 싶어요.” 그녀는 찬양을 불렀습니다. “**이것이 갈보리의 은혜요, 주님의 상처를 통해 보여진 은혜여라, 보라 주 예수께서 너의 고통을 담당하셨도다. 귀한 보혈을 흘려 주님께서 값을 치르시고, 너를 존귀하게 하셨네. 이것이 갈보리의 은혜여라.**”



### 칼비야와 아버지의 베이커리

칼비야 자매는 오빠 부부와 1살배기 조카를 잃었습니다. 타밀 족 문화에서는 장남이 가족의 부양을 책임집니다. 칼비야 가족은 작은 베이커리를 운영했는데 오빠가 없으니 어려워졌습니다. 장남을 잃은 칼비야의 어머니는 매일 울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조롱도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힌두교를 버리고 기독교인이 되어 벌을 받았다고 조롱했습니다. 칼비야의 오빠는 그 집안에서 처음으로 예수를 믿고 가족을 전도했습니다. 오픈도어는 칼비야 가족에게 제빵을 조금 더 늘릴 수 있게 추가 트레이 비용을 후원했습니다. 칼비야의 아버지는 트레이가 하나여서 힘들었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감사를 전했습니다.

### 캄나나라야의 ‘무루쿠’ 과자 공장

캄나나라야 형제는 ‘무루쿠’ 과자를 만들어 주로 무슬림들이 운영하는 가게들에 납품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에 의해 폭탄테러가 일어난 후 마을 사람들은 무슬림 가게를 보이콧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무슬림 가게들이 문을 닫았고, 캄나나라야 형제는 140만 루피(약 7,700달러) 손실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자본이 없어져 절박해진 캄나나라야 형제에게 교회를 다니지 않고 힌두교 사원에 나오는 조건으로 돈을 빌려주겠다는 제안도 있었지만 그는 거절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시온교회 담임목사님을 통해 오픈도어는 그에게 무루쿠 사업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식자재 재료비를 지원했습니다. 사업을 다시 시작하고 그는 마을의 보이콧 사태로 실직한 그 교회성도 3명도 고용할 수 있었습니다. 캄나나라야 형제의 감사를 전합니다.



### 라주 할아버지의 방앗간

62세의 라주 씨는 부활절 테러에서 아들과 딸을 잃었습니다. 아들 라메쉬는 시온교회의 직분자로서 테러범이 교회내로 들어가는 것을 막고 희생되었습니다. 정부는 큰 인명피해를 막은 라메쉬의 영웅적인 행동에 대해 사후 표창을 했습니다. 생계를 책임지던 두 자녀를 잃은 라주 씨에게 오픈도어는 생업을 위한 방앗간 기계를 지원했습니다. 정부의 사업허가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하루에 약 1,500루피(약 7\$)를 벌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라주 씨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살았네요. 손자들에게 기대지 않을 수 있게 됐어요. 저는 여러분의 도움을 갚을 수 없지만 하나님께 축복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희망의선물 2021 캠페인

## 서부 네팔의 교회 건축



서부 네팔의 이 교회는 처음에 오두막에서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한 칸에 소와 염소들이 있는 오두막입니다. 마을사람들은 이 오두막이 열려 있어 방해가 된다고 예배를 핍박하였고, 방을 빌려주지도 않았습니다. 성도들은 헌신하여 십일조와 헌금을 모아 교회건축을 위한 땅을 구입했습니다. 그 땅 위에 대나무와 진흙으로 자그마한 교회를 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지진으로 그 허물한 교회는 무너졌습니다. 결국 목사님 집의 작은 방에서 다시 모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너무 작아서 성도들이 다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의 후원으로, 작년에 이 교회 건축을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 박해지역 파괴된 교회 보수/건축, 예배 장소 지원 ➡ ‘희망의 선물’ 12번 (소식지 뒷면)

인도/방글라데시/네팔, 나이지리아/카메룬에 박해와 자연재해로 파괴된 교회들이 많습니다.

\*금액은 국가별 지역별 현장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자유롭게 후원해주시면 됩니다.

### 한국오픈도어 연중캠페인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고린도전서12:26



**‘월 10,000₩ 개인후원자’ 500명,  
‘월 50,000₩ 후원교회’ 100교회  
기다립니다!**

전세계적인 환경이 점점 더 기독교 박해지역의 성도들을 위한 지원의 필요성을 크게 만들고 있고 축복받은 한국교회의 일원으로서 부담과 책임감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오픈도어는 더욱 적극적으로 섬김의 역할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한국오픈도어는 지정헌금 90프로를 박해받는 현지교회와 성도들에게 보내고 사무실운영비를 위한 모금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초창기와 같은 적은 수의 전임 인력으로 사무실을 유지하느라 다각적인 홍보와 개발업무를 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한국오픈도어의 운영과 개발을 위한 월 1만원 정기후원자, 월 5만원 정기후원교회가 되어 주시고 주위에 소개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한국오픈도어 정기후원 자동이체 신청하기

\*홈페이지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이름(예금주)	생년월일 (예금주번호)	전화번호
출금은행	출금계좌번호	
출금액	10,000₩	출금일선택
		○5일 ○25일
		출금동의 서명

\*작성하신 후 사진으로 전송해주세요(010-7548-3171)

\*직접 이체하실 경우 후원계좌 : 국민은행 029301-04-167093(한국오픈도어선교회)

### 후원요청

## 코로나(COVID-19)긴급 구호

올해는 그동안의 코로나 여파로 인한  
“기아 팬데믹”이 올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계속되는 긴급구호에 기도와 후원으로 동참해주세요!

**코로나후원계좌 SC제일은행 221-10-011008  
(한국오픈도어선교회)**





오직 신앙 때문에 박해받는 사람들을 위한

# 나의 희망의 선물 2021

우리의 작은 실천이 한 사람의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 전달/훈련	선물 1	박해지역 성경전달-오디오/디지털 성경 포함	6\$ (7,000₩ ~)
	선물 2	박해지역 제자훈련-SSTS세미나 등	20\$ (30,000₩ ~)
	선물 3	박해지역 목회자훈련/컨퍼런스	20\$ (30,000₩ ~)
생계 지원 (SED)	선물 4	이슬람 박해지역 안전가옥 및 생계지원	30\$ (40,000₩ ~)
	선물 5	탈북자 안전가옥 및 생계지원	30\$ (40,000₩ ~)
	선물 6	박해지역 수입창출 프로젝트 지원	40\$ (50,000₩ ~)
여성·어린이 케어	선물 7	박해피해 여성/어린이 트라우마 치료, 지원-순교자 가족 포함	40\$ (50,000₩ ~)
	선물 8	박해피해 여성/어린이 교육과 생계지원	40\$ (50,000₩ ~)
	선물 9	박해지역 어린이 주일학교, 캠프 지원	20\$ (30,000₩ ~)
난민/투옥자/ 파괴된 교회 지원	선물 10	박해로 인한 크리스천난민 구호, 지원-시리아 난민 포함	50\$ (60,000₩ ~)
	선물 11	박해피해 크리스천 법률지원-투옥자 포함	50\$ (60,000₩ ~)
	선물 12	박해공격으로 파괴된 교회 보수/건축, 예배장소 지원	100\$ (120,000₩ ~)

※ 기존 정기후원자님의 후원은 2021년 선물번호에 따라 약간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변경을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참여안내 “후원자님이 지정하신대로 박해받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전달됩니다”

1. 후원항목을 원하시는대로 선택하세요(다중선택 가능)
2. 총 선물 금액을 오픈도어 '희망의 선물' 계좌로 송금해주세요.  
[신한은행] 100-027-453994 (예금주: 한국오픈도어선교회)
3. 전화(02-596-3171/010-7548-3171) 또는 메일(odsk@opendoors.or.kr)로 신청내역을 알려주세요.
4. 매월 자동이체(CMS)로 선물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선물 번호:	이름(예금주):	생년월일(예금주번호):
전화번호:	출금 은행 및 계좌번호:	
출금액:	출금일 선택 <input type="checkbox"/> 5일, <input type="checkbox"/> 25일	출금동의서명:

위 표를 작성하신 후 사진으로 전송해주세요. 보내실 곳 : 010-7548-3171



**OpenDoors**  
전세계 박해받는 교회들 섬기는 오픈도어선교회